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사역을 시작한지 4년을 마치는 시점에 돌아보니 그동안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정말로 크고도 놀랍습니다. 동역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 및 후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만 믿으며 기도편지로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1. 이민자 프랑스어 교육

마르세유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한 이민자 언어학교(ELIBR)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은 금년 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의 학생 중 8명이 프랑스어 공인 DELF A2 시험을 6월 21일 치렀습니다. 수험생 개인당 장학금을 지급하여 시험치르는 비용을 경감시켜 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작년 9월 개강할 때부터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수업을 종료하는 시점에 학생들이 눈가를 적시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느껴져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비록 무슬림이지만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전날 Anne-Claire 성도와 함께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 것 같아요. 시험 결과는 6주 후에 나오는데 시험을 마친 학생들의 표정을 볼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합격증을 받고 프랑스 정식 체류증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좌로부터: 이민자 언어학교에서 동역자들의 기도 모임, DELF 시험 전날 수업 후 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마치고 현장에서 찍은 학생들의 밝은 모습)

## 2. 마르세유 한국문화센터(ACCPM)

마르세유 한국문화센터 활동 초기에는 9명이 등록했는데 그 이후 점차 늘어나 현재 15명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고자 하는 현지인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학생들의 요청으로 3월 30일 K-Pop 노래방의 날 행사를 하였는데 학생들의 한국어 노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노래방 행사를 자주 하자는 요구도 받았어요. 4월 28일에는 서울 사랑의 교회 단선팀 9명이 와서 한국문화의 밤 행사를 하여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특히 학생들 중 4명(까트린, 니폴, 리타, 소피)에게는 불한 이중언어 성경을 주고 프랑스어와 한글을 비교해 성경을 읽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라고 권유했고, 앞으로 한국어 수업 후에 함께 성경을 읽자고 제안했는데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까트린과 니폴은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여러 차례 참석한 적도 있고, 까트린(그리스도 정교회 신도)은 오는 10월에 친구 2명과 함께 3주 동

안 한국을 여행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는 한국에 장기 체류 목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 불어권선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 함께 수고한 동료 선교사들과 지난 활동을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 시작하는 다음 학년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하는 학생에게는 불한 성경을 주고 함께 한글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이 일을 통해 예수 이름이 이들 마음속에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사진 좌로부터 4월 28일 사랑의교회 단선팀 행사, 한국어 강의, 금년도 종강 파티 다과회, 이 자리에는 감베타 교회 미카엘 담임목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 3. 생명샘교회(Eglise Source de Vie)

생명샘 교회는 담임목사님의 건강 문제로 공식적인 교회 활동을 중단하고 담임목사 없이 성도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모여 예배드리기로 하였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이웃 도시 엑상 프로방스에 있는 같은 교단 소속 교회(역시 담임목사 없이 성도들의 모임)와 연합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6월 18일 교회당에서 마지막 공식 예배를 드린 후 사진을 찍었습니다.



#### <기도 제목>

- 1) 방학 중 휴식과 함께 재충전하여 보다 진보된 선교 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 2) DELF 시험에 응시한 무슬림 학생들이 합격하여 정식 체류증을 받는데 도움 되게 하시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각자 느낄 수 있도록
- 3) 마르세유 한국문화센터 학생 중에서 불한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현지인들이 한글 성경을 읽고 예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 4) 일대일 양육중에 있는 세네갈 무슬림 청년 보카Bocar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도록
- 5)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며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 6) 딸 가족(아라, 표호석, 서후, 준후)과 아들(동기)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 7)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후원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 임하시길

감사합니다.

마르세유에서 조항덕 구혜선 드림.